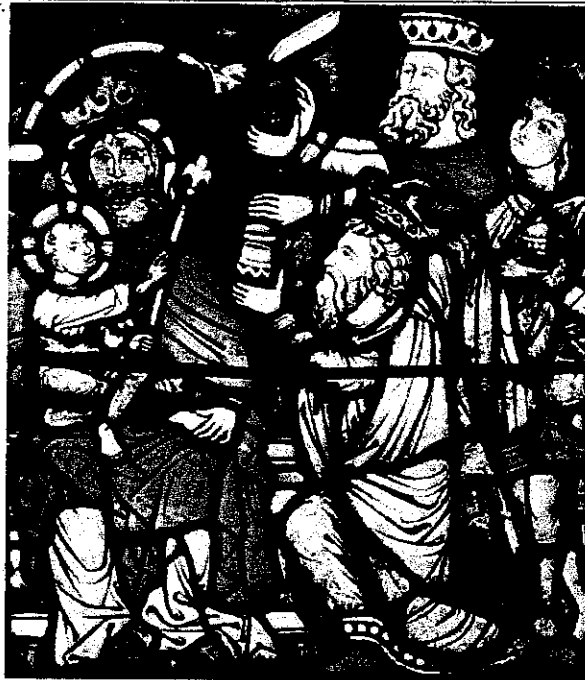


한마음 주보

Hanmaum (one-in-Christ) Korean Catholic Church
 4812 W,Napoleon Ave. Metairie LA 70001
 본당신부 : 박준혁 프란체스코 (504)888.2366/782.4474
 회 장 : 송명훈 요셉 (504)368.0362/236.4202
 성당 : (504) 888.8772 E-mail : franco4369@hanmail.net
 Web page : www.geocities.com/hanmaumcatholic



작자미상,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동방의 박사들>, 1400년경, 유리화, 쾰른 주교좌 성당, 쾰른, 독일

성화해설: 이 유리화에는 세 명의 동박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을 표시하는 붉은색 겹옷을 입고 있으며, 아기 예수는 천상의 빛과 무죄함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손에는 권위의 상징인 지팡이를 들고 있다.

✠ 오 늘 의 미 사 ✠

제 1 독서
 화 답 송
 제 2 독서
 복음환호송

이사 60,1-6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에페 3,2,3 나.5-6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알렐루야

마태 2,1-12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예물을 가지고 왔노라.

복 음
 영성체송

공평화의 동체인 인류 가족

고준석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 | 명동성당 부주임

오늘은 주님이신 아기 예수님의 공현 대축일이다. 공현(公顯)이란 '공식적으로 나타내 보이다'는 뜻으로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로 드러나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 복음의 내용은 유일하게 마태오 복음서에서만 나오는 것으로서 이방인인 동방의 세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뵙고 그분께 선물을 드리며 그분을 경배하는 모습을 통하여 성탄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한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빛'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어두움을 속속들이 비추시고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밝혀 준다.

동방의 세 박사, 가스팔, 발다살, 멜키엘이 하늘에 나타난 이상한 큰 별을 보고 그 별빛을 따라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뵙는다. 고대 사람들은 신생아가 태어날 때마다 하늘에 새로운 별이 생긴다고 믿었다. 그래서 새로이 반짝이는 별이 생겨나면 분명 훌륭한 사람이 태어난다고 믿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상한 별도 이러한 역할을 한다. 그 별은 유대 지방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갔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정작 헤로데를 비롯한 왕궁 사람들의 눈에는 그 큰 별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왜일까?

사실 헤로데와 왕궁의 사람들도 그 별을 보았을 것이다. 그 별은 유대에도, 그리고 동방에도,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별을 보았지만 그 별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현실적인 삶만을 바라보고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 자신의 권력에 집착하고 있었던 헤로데와 그의 측근들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아기 예수님의 별을 볼 여유가 없었었을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현실의 안락한 삶에 머무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반면에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았고, 별을 의미를 알고 그것을 따라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의미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편안한 현실의 모습이 아닌 무엇인가 더욱 깊고 높은 것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별을 보았고 그 빛에 모든 것을 걸고 길을 떠나 마침내 세상의 구원자이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늘날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사랑의 증거인 별을 보여 주고 계신다. 그러나 이 증거의 포지를 전혀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보고도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며, 깨달고도 별반 달라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 사실 그리스도의 신비는 권력이나 물욕, 이기심에 눈이 먼 사람에게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상징하는 '별'은 겸허하게 마음을 비운 사람, 자연과 역사 안에서 항상 하느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에게만 보이기 마련이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별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 별은 간절히 주님을 찾는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 있을 때 은총의 선물로 우리에게 보인다. 그리고 그 별을 본 사람은 선물을 준비하여 주님을 만나러 떠나야 한다. 동방의 세 박사들처럼...

성가정을 향하여

백낙헌 요셉 | 가정 성화 사도적 봉사자

아내와 연애로 만나 결혼하여 3남매를 선물로 받았다. 첫째와 둘째는 출가하여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고, 막내는 군복무중이다. 부모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신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뒤돌아보면 가정을 꾸리고 부모님들에게서 배우며, 형제들과 부대끼고 자녀들을 낳아 기르면서 철(?)도 들어가고 비로소 '참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남녀의 사랑은 감정과 열정으로 시작되지만 그 사랑의 성숙은 의지와 수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죽음처럼 강한 사랑도 저승처럼 억센 정열도" (아가 8,6) 상처받고 변하기 쉬우며, 식지 않고 지속하기란 지난한 일이다.

사랑의 의지가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참고 견디어 내는 일" (1코린 13,4,7)이라면, 수련이란 몸에 배여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보다 좋은 관계를 위하여 상대를 경청하기, 고운 말·바른 말·따뜻한 말하기, 욕구를 헤아리고 배려하기, 스킨십 등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지만 누구나 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이혼이 넘쳐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모든 믿는 이들이 소망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성가정'을 꿈꾼다. 가정이 시작되는 남녀의 혼인에 하느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서로에게 최상의 배필을 짝지워 주시고, 책임지고 축복하시겠다는 것이 혼인성사라고 한다면 늘 감격과 감동으로 배우자를 대해야 될 것이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실수하실리도 없고, 선하신 하느님께서 장난하실 분은 아니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보면 혼인을 성사의 품위로 세우신 주님께 감사함이 성가정의 시작이 되리라.

지난 세월 언제나 남편과 가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밥'이 되어 주었고, 신앙의 동지로서 공동체에서 함께 봉사하며 맑고 밝게 살아가는 기쁨을 보여 주는 아내를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한다.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에게 그리고 아들 예수에게 밥이 되어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성가정을 이루었고, 그러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기에 아들 예수는 온 인류를 위하여 밥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생애에는 그 동안 받기만 한 내가 성가정을 지향하며 아내와 아이들에게 일상 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밥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다짐해 본다. 내 옆에 행복의 원천인 가족이 있다는 사실, 하느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총을 잊지 않도록 우리 집 가훈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시편 8,5)

▶ **우리들의 정성** ◀

날 짜	봉헌금	2차헌금	교무금	합계
12월 30일	365불		1400불	1765불
12월 31일	480불			480불
북한 라면식당 돕기		356.43불		

날 짜	미사 참석	영성체
12월 30일	52명	35명
12월 31일	58명	46명

▶ **전례 봉사자** ◀

구 분	미사 해설	독 서	복 사
이번 주일	김 노엘	송명훈 요셉	윤상현 토마스
		송봉란 엘리사벳	이정민 토마스
다음 주일	송 엘리사벳	김종국 알벨토	음하나 마리아
		김연미 가르디나	김은수 줄리아

공지사항

1. 오늘 미사후에 평협회의 있습니다.
2. 다음 주일에 성모회 있습니다.
3. 다음 주일에 공소미사가 있습니다.
4. 다음 주간 주임 신부 부재로 인해 수요일 미사는 없습니다.
5. 오늘 미사 중에 교무금에 대한 설명과 교무금 카드를 내드리겠습니다.
6. 다음 주일 음식 준비는 희망 마을입니다.

했던 일

1. 바빴던 두 주간이었습니다. 23일 미사와 성탄 전야/ 30일 미사와 '송년미사'가 계속되어 정신없이 1년이 지나 간 것 같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행사를 무리없이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로마로 돌아가셨지만 황보 위 신부님의 도움도 컸습니다. 새로운 2008년입니다. 2008년에도 성당일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모든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기도하며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한 해를 멋지게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공현(公現) 대축일'이란?

! 새해 첫 주일 1월 6일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해마다 1월 2일부터 8일 사이의 주일에 지냅니다."공현(Epiphania)"이란"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공적으로 드러남"을 뜻합니다. 해마다 주님 공현 대축일에는 세 동방박사의 아기 예수 방문 이야기를 복음으로 봉독하기 때문에, 이 날을'삼왕래조'(三王來朝) 축일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현 신비는 그 성격상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첫 번째 기적과 주님의 세례 사건을 포함합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구세주의 탄생과 그 강생의 신비가 지니고 있는 공적인 의미를 확인하고 구세주 예수께서'만왕의 주님'이란 사실을 장엄하게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세 박사 카스발과 멜키올, 발다살은 이방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아 왔다는 것은 하느님의 구원과 은총이 유대의 국경을 넘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는 보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기를 경배하며 드린 그들의 선물은 구세주 예수의 생을 가름하는 상징적인 예물이었습니다. 황금은 메시아로 나신 아기 예수를 하늘과 땅의 최고 통치자로 모신다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기도와 흠숭의 상징으로, 그 향기로움을 한 분이신 하느님께만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향은 아기 예수가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곧 그리스도의 신성을 뜻합니다. 몰약은 죽음과 장례를 연상케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수난을 상징합니다.